

김도영, 3경기 연속 홈런... '제2 이종범'이 왔다

산체스·김광현 등 상대로 대포
17일 SSG전서는 연타석 홈런
3할 타율 진입... 장타 6할 육박
이번 시즌 건강하게 완주 기대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이 올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을 털어내고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홈런과 함께 개인 통산 두 번째 연타석 홈런까지 쏘아 올리며 '제2의 이종범'이라는 평가에 걸맞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김도영은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2차전에서 멀티 홈런을 포함 4타수 3안타 1사구 1도루로 5타점 4득점을 생산했다. KIA는 김도영의 활약에 힘입어 11-3으로 SSG를 대파하고 단독 선두를 수성했다.

김도영은 이날 홈런으로 프로 데뷔 후 첫 3경기 연속 홈런을 터트렸다. 앞서 14일 한화전에서 리카르도 산체스, 16일 SSG전에서는 김광현을 상대로 대포를 쏘는 괴력을 과시했다.

이날은 네 번째 타석과 다섯 번째 타석에서 최민준과 이기순을 상대로 연타석 홈런까지 터트렸다. 김도영은 지난해 7월 같은 장소에서 백승건과 이로운을 상대로



KIA타이거즈 김도영(오른쪽)이 지난 17일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2차전 7회초 1사 1·2루에서 중월홈런을 터트린 후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프로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린 바 있다.

김도영이 5타점을 생산한 것 역시 프로 데뷔 후 처음이다. 종전 최다는 2022년과 2024년 1회, 2023년 3회 기록했던 3타점이었다. 4득점 역시 프로 데뷔 후 최다 타

이기적이다. 지난 2023년 한차례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타율 역시 시즌 처음으로 3할대 진입에 성공했다. 지난 16일까지 2할8푼이었던 타율이 17일 경기를 마친 뒤에는 3할2리까지

뛰어올랐다.

장타율과 출루율도 점차 정상 궤도를 찾고 있다. 장타율은 5할9푼3리까지 올랐고 출루율 역시 3할3푼7리까지 끌어올렸다. 출루율의 경우 지난해 3할7푼1리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A로서는 김도영이 최상의 컨디션을 되찾은 것이 반가운 상황이다. 리드오프 박찬호가 이날 사구 후유증이었던 좌측 흉추부 타박상을 털고 돌아온 가운데 강력한 테이블 세터진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범호 감독이 시즌 초반 1번 타자 박찬호-2번 타자 김도영으로 테이블 세터를 가동한 상황에서 박찬호가 부상, 김도영이 부진을 겪으며 KIA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서건창과 최원준, 이창진 등이 테이블 세터에 포진되기도 했다.

이 감독이 "손가락 부상으로 시즌 준비가 늦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실력은 확실한 선수다. 시즌을 치를수록 컨디션이 올라올 것"이라며 믿음을 보냈지만 불안함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었다.

컨디션 관리에 대한 불안함마저 털어내며 김도영은 프로 데뷔 첫 풀시즌 소화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고 있다. 김도영은 지난 2022시즌과 2023시즌에는 각각 손바닥과 발가락 부상으로 시즌을 온전히 치르지 못했다.

김도영 역시 시즌 초반부터 "올해는 건강하게 경기를 치르면서 풀타임을 뛰는 것이 목표"라며 "다치면 모든 성적이 의미가 없어진다. 건강하게 경기에 나갈 수 있어 감사할 뿐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테니스 국대' 정운성 "쉬위슈와 호흡 강력"

광주오픈 복식 준결승행

부산오픈 준우승... 정상 도전

정운성(안성시청·ATP 복식 랭킹 169위)이 쉬위슈(Hsu Yu-hsiou·대만·350위)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오픈 챌린저 2024 복식에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정운성-쉬위슈 조는 18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 센터 코트에서 열린 광주오픈 복식 8강에서 제이크 델라니(Jake Delaney·985위)-리 투(Li Tu·이상 호주·390위) 조를 2-0(6-1, 6-3)으로 완파했다.

정운성은 대회 공식 인터뷰를 통해 "부산오픈 복식 결승이 끝나자마자 광주로 넘어와서 바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했고 승리를 쟁길 수 있어 굉장히 기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복식 8강에 앞서 열린 단식 16강에서는 로이드 해리스(Lloyd Harris·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0-2(4-6, 4-6)로 석패했다. 광주오픈 단식 역대 최고 성적 타이 기록이자 올해 ATP 챌린저 투어 첫 본선 1회전 통과이지만 아쉬움이 큰 결과였다.

정운성은 "챌린저 투어 단식에서 본선 첫 경기를 이긴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뿌듯했다"면서도 "경기력은 더 좋아졌는데 발에서 통증이 느껴지다 보니 마음이 급해졌다. 발 상태만 더 좋았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복기했다.

정운성은 단식의 아쉬움을 복식에서 털



정운성(오른쪽)과 쉬위슈가 18일 ATP 광주오픈 챌린저 2024 복식 8강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

어내겠다는 각오다. 쉬위슈와는 세 번째 호흡이지만 앞선 부산오픈에서 준우승, 벵갈루루오픈에서 우승으로 모두 결승에 진출한 좋은 기억이 있다.

그는 "복식은 단식에 비해 움직이는 양이 적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도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며 "단식에서 이루지 못한 결과를 복식에서 해내겠다. 무조건 우승한다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정운성은 이번 광주오픈에서 단식과 복식 모두 개인 최고 성적 타이 기록을 달성했다.

단식 16강은 세 번째, 복식 준결승은 네 번째다. 하지만 쉬위슈와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복식에서만만큼은 최고 기록을 경신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쉬위슈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다. 파트너로는 세 번째이지만 서로의 테니스가 워낙 공감이 좋다"며 "서로 많이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 좋은 플레이,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번 대회도 남은 두 경기를 서로 잘 소통하면서 풀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광주장애인육상, 전국장애인육상선수권 2연속 종합우승

금 26·은 22·동 12개... 역대 최고

광주장애인육상 선수단이 제5회 전국장애인종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우승이다.

18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총 38명(선수 28·임원 및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선수단(감독 이상준)은 지난 14-16일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겸 제1차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금 26개, 은 22개, 동 12개 등 총 6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우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종합우승으로, 역대 최고성적이다. 이는 실업팀이 없는 사·도에서 이뤄내기 불가능에 가까운 이례적인 성과라는 평가다.

테니스 국가대표, 내일 광주서 원포인트 레슨

남지성·송민규·이재문·정운성

테니스 국가대표 남지성(세종시청)과 송민규, 이재문(이상 한국산업은행), 정운성(안성시청)이 20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리는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오픈 챌린저 2024 단식 준결승과 복식 결승을 앞두고 유소년 및 동호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에 나선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광주오픈 피날레를 맞아 국가대표 원포인트 레슨과 사인회, 여성 동호인 대회, 테린이 대회, 울망



제5회 전국장애인종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 26개, 은 22개, 동 12개 등 총 6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한 광주장애인육상선수단.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시각장애 국가대표 김지혜가 F13 여자 원반·포환·창던지기에서 모두 1위에 올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관왕을 달성했다. 김지혜 오빠 김천천도 F13(시각장애) 남자 원반·포환·창던지기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이로써 두 남매 선수는 올해 11월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3관왕 달성을 기대케 했다. 문지수는 DB(경각장애) 여자 100m·200m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최동환 기자

줄망 공유장터, 빛고을영무장농악단 축하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오픈 단식 준결승과 복식 결승이 열리는 20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유소년 및 동호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원포인트 레슨이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대표 남지성과 송민규, 이재문, 정운성이 강사로 나선다.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유소년 및 동호인 선수들은 광주시테니스협회 홈페이지(http://www.gjtennis.net/)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

다.

20일과 21일에는 각각 여성 동호인 대회와 MZ 세대를 위한 테린이 대회도 동시에 열린다.

양일간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돼 있으며 21일에는 광주공유센터와 함께하는 울망줄망 공유장터도 개최된다. 공유장터에는 페이스 페인팅과 에코백 체험, 물피리 만들기, 물물교환, 공유놀이 등이 마련돼있다.

21일 단식 시상식까지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에는 빛고을영무장농악단의 축하 공연이 열린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우도농악을 계승 및 전승하고 있는 빛고을영무장농악단은 광주오픈의 문을 닫는 축제의 무대를 조성한다.

한규빈 기자